

# 성폭행 19~21일 집중 발생...군부대 이동 경로 따라 피해

## 5·18 계엄군 성폭력 정부 공동조사단 5개월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지난 5개월 동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풍문으로만 나돌았던 계엄군의 무자비한 성폭행 정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여고생, 여대생, 주부 등에 대한 성폭행은 물론 '오월의 노래'에 나오는 '두부처럼 잘려 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이란 가사도 참혹한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행위를 정부가 조사·확인하고 인정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조사 결과=정부 공동조사단은 상담·접수를 통해 8건의 성폭행 피해, 성폭행 목격 2건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가해자 추정이 이뤄졌으며 이외 사례는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행은 민주화운동 초반인 1980년 5월 19일~21일께 대다수 발생했으며 장소는 초반에는 광주 도심(금남로, 장동, 황금동)에서, 중후반 광주 외곽지역(광주교도소, 상무대)으로 이어졌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발생지역이 군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 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과 사랑한 여성의 유방 및 성기가 훼손된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광주광역시 보상 심의 자료'(1~6차)를 통해 총 45건의 성폭력 사례도 확인했으며 이중 성폭행은 12건, 구금시 성적 가혹행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침해 행위는 33건으로 조사됐다. 연행·구금 여성 피해자 대다수는 구타, 욕설 등 무차별적 폭력에 노출됐으며 성적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여성은 물론 여학생, 임신부에 대한 폭력 행위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헌 및 자료를 통해서도 12건의 직접 피해 및 다수의 여성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4건

상담·접수 성폭행 8건, 목격 2건  
보상 심의 자료 성폭력 45건 확인  
여학생·일반여성 피해 다수 발견

국가기관 인정·사과·재발 방지  
가해자 처벌 대책 마련 등 제언

은 성폭행 추정, 3건은 유방·성기 등에 자장 관련 기록, 2건은 상무대 등에서의 고문, 3건은 구타 및 성적 위협이었다.

성희롱, 성고문, 구타 등에 대한 다수의 목격 증언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은 국가정보원, 기무사, 특전사 등 20개 기관과 군 부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계엄군의 병력 배치와 이동로는 물론 복장과 장비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도 했다.

◇정책 제언=정부 공동조사단은 계엄군 성폭행에 대한 국가 기관의 인정,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 폭력 트라우마 센터 설립 및 피해자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국가 폭력 피해자의 집단 기억을 국가 기록으로 공식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당시 성폭행을 목격했던 군인들의 증언을 유도하는 노력과 함께 진실 고백을 조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유예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당시 현장 지휘자 및 성폭행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소 시효 등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 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심상정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명시하는 한편 진상조사위 내에 성폭행 사건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공동조사단은 지금까지의 조사 자료를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이관하고 진상조사위 출범 전까지 광주시 통합신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해자 면담 조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선거제 개편 착수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선관위 의견 청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지난 24일 회의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들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우선 국회의원 300

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2015년 2월 제안한 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서울과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의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식이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21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1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지난 5일까지 선관위원장에 통보해야 했지만,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위 구성 절차도 지연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사항은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문대통령, 전국 시·도 순회 '경제 챙기기' 행보

### 군산 찾아 "경기 침체 마음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경제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주도형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며 30일 전북 군산 방문이 그 첫 시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사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제를 모토로 한 문 대통령의 지역 순회 방문은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 악화, 소상공·자영업 위기, 증시 폭락, 금리인상 여부 논란 등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거듭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기존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매개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중공업-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방문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오랫동안 진행된 원인이 있지만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메카로서의 새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

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건설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전 선포식 축사에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로 이동,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진도개 테마파크** Jindo Dog Theme Park  
천연기념물 제53호

우리나라 토종개, 진도개의 공연과 경주를 보면서  
진도개의 용맹함과 주인에 대한 충직함을 느끼며  
진도개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진도개 공연 · 경주안내

구분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장소	평일공연장	주말공연장, 경주장	
공연	10:00, 15:00	13:00	
경주	-	13:20	
진행	진도개사업소 훈련사	진도개 공연단 진도개 경주단	

### 오시는 길!

도로명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죽골길 30  
내비주소 | 진도개테마파크  
진도개사업소 | 061-540-6306

자카용 |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당진-군산-죽림JC-서영암IC 경유  
남해안고속도로 부산-진주-통진JC-서영암IC 경유

버스 | 서울↔목포(2시간 30분 소요) 1일 30회  
수서↔목포(2시간 30분 소요) 1일 9회  
※ 목포↔진도 버스 이용

서울↔진도(5시간 소요) 1일 4회  
목포↔진도(1시간 소요) 1일 22회